

“공허해진 약속들…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할 것”

광주화정아이파크 참사 4주기

안정호 유가족 대표 “기억 공간 조성하고 책 집필” 추모식 거행·사고현장 행진…추모객 “희생자 애도”

“그날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
지 않네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4주기인
11일 안정호(48)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차분하지만 단
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는 “유가족들은 여전히 사고 당일에
머물러 있다”며 “사회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동안,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하
루하루를 견뎌왔다”고 말했다.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
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로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안 대표 역시 이
사고로 매형을 잃었다.

안 대표는 “사고 이후 약 3개월간 운전
대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며 “평범한 일

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한순간에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몸으로 겪었
다”고 회상했다.

유가족들은 사고 직후부터 서로의 곁을
지키며 슬픔을 견뎌왔다. 실종자 수색이
이어졌던 29일 동안 현장 인근에서 텐트
를 치고 버텼던 시간. 매서운 겨울바람 속
에서로 떠나지 못했던 기억은 지금도 유
가족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다.

안 대표는 “그 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며 “아픔을 나누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털어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
다. 안 대표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유가족 사무실 마련과 추모 사업 등을 약
속했지만, 상당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



광주화정아이파크 참사 4주기 당일인 11일 안정호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사고 현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 지켰다. 그는 “담당자가 바뀌고, 논
의는 흐려졌으며, 약속은 미뤄졌다”며
“유가족들은 어느 순간부터 위로의 대상
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문제’가 된 느낌
을 받았다”고 말했다.

관할 행정기관인 서구청의 역할에 대해
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안 대표는 “구청 역시 시공사에 책임 있
는 역할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

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망
각’이다. 안 대표는 “참사가 과거의 사건으
로만 남을까 봐 두렵다”며 “사람들의 기억
에서 지워지는 순간, 같은 비극은 또 다른
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유
가족들은 스스로 기억을 지키는 길을 선

택했다. 사비를 모아 추모 공간을 마련하
고, 참사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
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붕괴사고 이후의 과정을 날짜별
로 정리해 ‘재난은 찾아온다(가정)’라는
책을 펴낼 계획”이라며 “사고 이전과 이
후,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담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 인근에 작
은 표지석이나 기억 공간을 조성해 시민
들이 언제든지 참사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
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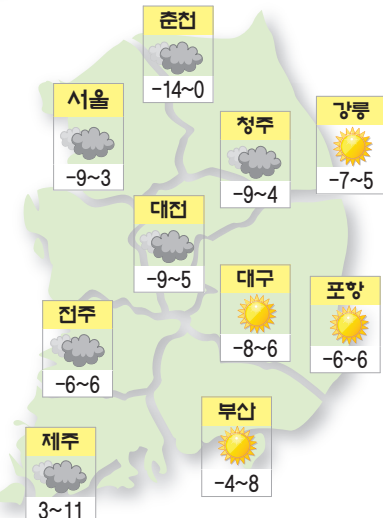
안 대표는 “거창한 기념물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하다”며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유가
족협의회는 11일 공사 현장 인근에 마련
한 추모 공간에서 추모식과 산업재해 희
생자 위령제를 진행했다. 이날 유가족과
시민들은 오전 10시 위령제와 분향소 운
영을 시작으로 오후 3시 추모식, 오후 4시
사고 현장 행진에 참여하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 | | |
|----|-------|----|-------|
| 예보 | 07:41 | 달출 | 01:53 |
| 예보 | 17:41 | 달몰 | 07:14 |



| | | |
|----|----|--------|
| 광주 | 구름 | -5~-6 |
| 목포 | 구름 | -4~-7 |
| 여수 | 구름 | -4~-6 |
| 순천 | 구름 | -6~-6 |
| 구례 | 구름 | -7~-5 |
| 광주 | 구름 | -7~-9 |
| 진남 | 구름 | -3~-10 |
| 목포 | 구름 | -2~-10 |
| 고흥 | 구름 | -7~-8 |
| 진남 | 구름 | -2~-9 |

| | | |
|----|-------|---------------|
| 목포 | 미물(고) | 08:46 / 20:36 |
| 여수 | 미물(저) | 01:23 / 14:07 |
| 목포 | 미물(고) | 03:48 / 15:18 |
| 여수 | 미물(저) | 09:41 / 21:49 |

현산, 화정아이파크 4주기 추모·안전 결의대회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4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현장 안전 의식
을 되새기는 행사가 진행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일 광주 서
구 화정아이파크 2단지 현장에서 희생자
추모식과 안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현장소장을 비롯한 현
장 직원들이 참석해 분향과 헌화, 묵념
으로 희생자를 기린 뒤 안전사고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
됐다.

이후 현장소장과 안전·품질 책임자들

은 사고가 발생했던 201동을 찾아 현장의
안전·품질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정한호 현장소장은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 지
역사회에 대한 책임”이라며 “안전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현재 8개 동
의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이달
중 골조 공사를 마치고 준공까지는 앞으
로 약 1년이 소요돼 2027년 초 입주가 예
정돼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눈썰매 즐기는 관광객들 휴일을 맞아 11일 오후 담양 관방제림을 찾은 관광객들이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전남 ‘눈폭탄’…시민불편 가중

무안 남악 23.9cm 등…강풍 신고·미끄러짐 등 속출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20cm가 넘는 눈
폭탄이 쏟아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광주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지역 내 적설량은 무안 남악
23.9cm를 최고로 목포 연산동 20.2cm, 해
남 산이면 18.8cm 등을 기록했다. 광주에
도 3cm 안팎의 눈이 내렸다.

앞서 무안과 해남, 목포에는 대설경보
가, 나주와 장흥, 강진, 완도, 영암, 함평,
진도 등 10개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
효됐다.

무안과 해남, 목포에 발효된 대설경보
는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제됐지만
완도와 영광 등 3개 군에는 대설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폭설과 함께 강풍과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남에서는 지역 여객선 45개
항로 58척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다가 이
후 33개 항로 38척으로 완화됐다.

또 구례 노고단, 목포 유달산 일주도
로, 목포 다부쟁길, 무안 만남의 길, 진도
두목재는 아직 통제 상태다.

눈길 미끄러짐 등 사건사고도 이어졌다.
광주소방본부에는 강풍에 따른 소방할
동이 8건 접수됐다. 이 중 낙하위험이 5건
이다.

전남소방본부에는 이날 오전까지 낙
상과 안전조치 등 20여건의 신고가 접수
됐다.

기상청은 12일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
으로 강한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안전
대비에 주의가 요구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10년 폭행·신체 포기각서 강요한 업주 재판행

폭언·심부름 강요…상습상해·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10년 넘게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
행하고 ‘신체 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이어가다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
지청 형사2부 황영섭 부장검사는 상습상
해,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약사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씨(43)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남 목포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사망 당시 44세)를
장기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매출 부진이나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수시로 폭력을 행
사하며 B씨의 일상과 심리 상태를 통제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책
입져야 한다”며 죄책감을 주는 방식으로
장기간 심리적 지배를 이어갔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욕설과 위협성 발언을
반복하며 사실상 노예처럼 부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처방약 대리 수령, 음식 배달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도 지속적
으로 강요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신체 포기각서’
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취
지의 변제이행 각서까지 추가로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B씨를 극단적인 심리 상태로 몰아
넣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극심한 괴롭힘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
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A씨
는 보관 중이던 신체 포기각서를 덮어쓰
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나, 검
찰은 문서 감정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밝
혀냈다.

임영진 기자 looks@

함평 붉은박쥐 활동 범위 ‘최대 18.38㎢’

영산강유역환경청 연구…대동천 등 국내 최대규모 서식

전남 함평에 서식하는 붉은박쥐의 활
동 범위(행동권)가 최대 18.38㎢에 이르
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발간한 붉은
박쥐 행동권 및 서식지 특성 연구에 따르
면 함평군 대동면 일원에서 관찰된 붉은
박쥐 16개체의 평균 행동권은 0.64㎢에
서 최대 18.38㎢, 평균 5.68㎢로 분석됐
다. 이번 연구는 2024년 12월부터 2025

년 11월까지 국내 최대 붉은박쥐 집단 서
식지에서 포획 개체를 대상으로 위치 추
적과 서식 환경 분석을 통해 진행됐다.

붉은박쥐는 멸종위기야생생물 I 급이
자 천연기념물 제452호로, 몸 전체가 오
렌지색을 띠고 귀 가장자리와 코끝, 뒷발
등이 검은색인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는 함평을 비롯해 무안, 신안 등 일부 지
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생

태적 특성상 고온·다습한 동굴에서 집단
동면을 하며, 여름철 활동기에는 울창한
산림과 수변을 오가며 먹이활동을 한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 16개체 중 3개체
(18.8%)만이 행동권의 절반 이상을 고
산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활동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개체
(81.2%)는 행동권 내 보전지역 비율이
최대 38%에 그쳐, 보호지역 외 공간 이
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됐다. 이는 보호지역 경계 밖 서식지 관
리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계절별 행동권 변화도 뚜렷했다. 붉은
박쥐의 행동권은 여름철에 4.39~18.38
㎢로 가장 넓었고, 가을은 3.64~8.85㎢,
봄은 0.64~10.42㎢ 순으로 나타났다. 활
동량과 먹이활동이 집중되는 여름철에
서식 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생태적 특성
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핵심서식지, 즉 주요채식지는 강운·대
동·수암 저수지와 대동댐, 용천사, 대동
천 일원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역은 대부
분 산림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크기는
평균 0.12~2.31㎢ 수준이었다. 행동권
범위 내 고도는 5~445m, 평균 160m
로 분석됐고, 붉은박쥐는 전반적으로 저
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향을 보였
다. 핵심서식지의 고도는 20~279m로 낮
았으며, 평균 경사도 역시 20도 미만의 완
만한 지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붉은박쥐의 안정적인 서식과
개체군 보전을 위해 △핵심서식지 집중
동량과 먹이활동이 집중되는 여름철에
서식 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생태적 특성
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생태·경
관보전지역 내에 다수의 붉은박쥐 핵심
서식지가 분포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환경 변화나 먹이원 생산성 저하가 발생
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평군은붉은박쥐(황금박쥐)를
지역 생태자원으로 활용해 보전과 홍보
를 병행하고 있다. 함평엑스포공원 내 황
금박쥐생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동
면 일대에는 체험·교육·홍보 기능을 갖
춘 황금박쥐 생태체험관도 조성했다. 군
은 이를 함평나비축제와 연계해 멸종위
기종 보전의 의미를 알리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콘텐츠로 확장에 나갈
계획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